“정초기도 공덕, 사회로 회향해야”

2월 25일, 조계사 7일 기도 회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법문
“선명상은 마음 가라앉히는 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정초 7일기도 회향법회’에서 사부대중에게 회향의 진정한 가치를 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초기도 회향 의미를 되새기며 탐욕을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과 마음 평화를 위한 ‘선명상’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2월 2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정초 7일기도 회향법회’에서 지도법사로 나서 사부대중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닦은 공덕을 사회와 조상에게 돌리는 회향의 진정한 가치를 설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기도 과정에서 겪는 번뇌를 언급했다. 스님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괴로워지기 마련”이라며 “욕심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해 마침표를 찍는 회향은 결국 중생에게 복으로 돌아가며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원만성취’의 경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예로 들며 불교의 인연법과 천도의 원리를 풀이하기도 했다. 스님은 “보이지 않는 원자가 모여 물질을 이루듯 조상과 나는 보이지 않는 ‘식(識)’으로 연결돼 있다”며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조상의 업과 나의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또 조상 천도에 대해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면 조상의 단단한 업이 녹아내리고 편안해진 마음이 곧 나에게 전달돼 나의 업장 또한 소멸되는 것”이라며 “결국 천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장애를 없애고 평화를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불편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육바라밀’ 실천을 주문했다. 스님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를 내면 또 다른 과보를 부를 뿐”이라며 “인욕하고 참는 연습을 통해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나누는 것이 곧 마음을 비우는 방하착”이라며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없듯 잠시 인연 닿아 머무는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고 베풀어야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고 육도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종단 핵심 사업인 ‘선명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현대인들은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번뇌 속에 살고 있다. 선명상은 요동치는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지름길”이라며 “현대인들이 선명상을 통해 불교에 친숙해지고, 나아가 간화선이라는 정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포교 전법”이라고 강조했다.

MZ세대, 조계사서 삶을 묻다

2월 22~27일, 1차 대학생 단기출가
진우 스님 “번뇌 벗어나는 게 출가”



2월 22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불기 2570(2026)년 제1차 대학생 단기출가 입재식’에서 참가자들이 머리카락의 일부를 잘라내며 수행 의지를 다졌다.

MZ세대 청년들이 조계사에서 단기출가를 체험하며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진행한 ‘불기 2570(2026)년 제1차 대학생 단기출가’가 2월 22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을 원만 회향했다.

이번 단기출가에는 남자 7명, 여자 8명 등 15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예불과 교육, 참선 정진, 운력 등 수행자의 일과를 함께하며 출가 행자의 삶을 몸소 익혔다. 휴대전화와 일상적 관계망에서 잠시 벗어나 청규를 따르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입재식에서 주지 담화 스님은 “하루라도 출가의 삶을 살아 보는 것은 큰 복”이라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진짜 출가자의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삶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행자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삼배로 서원을 올린 뒤 머리카락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과 행자복 착복, 대승원력 10계에 맞춰 절을 올리기 등으로 출가자로서의 수행 의지를 다졌다.

단기출가 도감은 부주지 탄보 스님, 은사는 덕산·원지·성해 스님, 지도법사와 습의사는 각각 보각·정오 스님이 담당해 수행 전반을 지도했다.

2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출가의 참뜻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출가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 등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존재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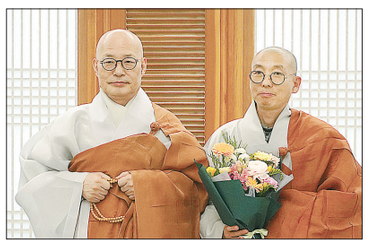
또 “세상은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연기법의 이치를 믿고 욕심을 덜어 내면 인연이 자연스레 돕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모든 것이 덕분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출가자의 자세”라며 남은 일정을 잘 회향하길 당부했다.

이번 단기출가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지낸 유주연 행자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유 행자는 “그동안 배운 가르침을 다시 정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다”며 참가 계기를 밝혔다.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친 대학생 행자들은 27일 회향식을 끝으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조계사는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선거소청’ 은해사, 직무대행 체제로

2월 24일 성천 스님에 임명장 전달
“교구 안정…호계원 판단 존중”
재심호계원, 3월 5일 상소 첫 심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4일 성천 스님에게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했다.

주지후보 선거소청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은해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주지 임기 만료 후 은해사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성천 스님에게 주지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성천 스님의 수행과 이력을 두루 검증해 고심 끝에 직무대행을 맡기게 됐다”며 “은해사 대중으로서 사정에 밝은 만큼 교구 스님들과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의 마음을 추슬러 교구 안정과 화합을 이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직무대행 임명을 계기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천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부대중이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맡겠다”고 답했다.

성천 스님은 혜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수계(사미계)했다. 조계총림, 덕숭총림 등 제방선원에서 10안거 이상을 성만했으며 영지사 주지, 은해사 사회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명식 직후 조계종 총무원은 대변인 묘장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직무대행 임명이 “교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종단의 종법 질서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 집행부는 사법 기구인 호계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심호계원은 지혜롭고 조속한 판단을 통해 종단의 안정과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2월 20일 열린 제430차 회의에서 덕관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덕관 스님은 소청 결과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상소를 접수했다.

2월 23일 상소 서류를 접수한 재심호계원(원장 정묵 스님)은 3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8차 심판부를 열고 상소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한다. 조계종 ‘선거법’에 따르면 재심호계원은 상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수령 · 김내영 기자

법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현우 스님

2월 26일, 187표 중 100표 획득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에 보궐선거에서 현우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현우 스님은 2월 26일 열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인단 225명 중 18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00표를 얻어 당선됐다. 석두 스님은 82표를 획득했으며, 무효표는 5표다.

이번 보궐선거는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의 총무원 직할사찰 강화 보문사 주지(관리인) 임명에 따라 치러졌다.

현우 스님은 “앞으로 교구 발전과 대중 화합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현우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공림사 주지를 거쳐 현재 영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보은 법주사=유재상 충청지사장

2026년 1학기
광주불교교육원 수강생 모집

광주불교교육원은 26년 이상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 1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여정을 꿈꾸는 많은 분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대학생 00명, 대학원생 00명
- 지원자격 : 불교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불교대학 : 2026년 3월 10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개강 (14주 강의)
  – 부처님의 생애, 십업설, 오계, 십계, 불교예절, 불교신행실습, 명찰순례
  – 강의교재경전 무료제공
- 불교대학원 : 2026년 3월 11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개강 (14주강의)
  – 불교 명상심리 특강 (김형준 교수)
  – 앙구타라니카야 강독 (인행 스님)
  – 강사진 : 김형준 교수, 혜민법사, 인행스님, 법연스님, 이순규 교수
  – 강의 교재 경전 무료제공
- 수 강 료 : 학기당 150,000원(대학, 대학원 공통)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소정 양식)
- 입학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1(3층)
  전화 : 062)228-9098, 010-3240-9098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및
해동율맥 아일다율원 학인모집 공고

담양 용화사에서 한국 불교의 핵심 의례인 ‘전통불복장’과 ‘계율’의 전통을 계승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 과정 안내

구 분	교육내용	기 간	교육시간
전통불복장	불복장 이론 및 실기	2년과정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율원 전문반	율장의 기초 및 전문 이론	2년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율원 연구반	전통율맥의 심화 연구	2년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모든 수업은 온/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 함.

2. 개강일시 : 2026년 4월 8일 매주 수요일
3. 수 강 료 : 매월 20만원(교과서 별도)
4. 지원자격 : 가)율 원 1. 기본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구족계(타종단가능)를 수지한 자
   2. 불기 2570(2026)년 구족계 수계 예정자
   나)불복장 1. 불교계 비구, 비구니, 교법사, 교임
   2. 의식에 관심있는 출·재가불자
5. 제출서류 : 1)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공통 4)기본교육기관 졸업 증명서(율원과정)
   2)승적증명서 및 수행이력서 – 공통 5)반명함 사진 2매 – 공통
   3)수계증사본(율원과정)
6. 접수 및 문의 : 담양 용화사 종무소 061)381-2683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교육원·아일다 율원장 도월 수진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